

박사학위 논문

## 김춘수 시의 멜랑콜리와 탈역사성 연구

이 성 희

2011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유중 선생님

이 논문은 김춘수의 시세계에 나타나는 멜랑콜리와 역사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춘수는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시인으로, 그의 시의 중심에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김춘수는 작품 활동 내내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시 창작에 반영하였으며, 처용으로 대표되는 예술가 주인공들을 통해 역사의 폭력에 맞서는 미학적인 실천방식을 모색했다.

멜랑콜리는 근대를 살아가는 미적 주체들이 느꼈던 감정으로, 진보적 역사가 이룩한 물질문명의 환상을 성찰적 시선으로 해부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때의 멜랑콜리는 단순한 감정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세계를 인식하는 세계감(世界感)의 성격을 띤다. 김춘수의 시세계에 나타난 멜랑콜리는 역사에 대한 미학적 실천방식으로써, 창조적 글쓰기에 몰두했던 시인의 세계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세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전략적인 의미들을 생성해 낸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멜랑콜리를 분석하고, 단계별로 멜랑콜리가 형성되고 발전하여 초극되는 과정을 통해 김춘수가 역사주의를 미학적인 방식으로 넘어서는 양상을 분석한다.

II장에서는 김춘수의 초기시에서 우울, 울음, 눈물 등의 시어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명확한 원인이 제시되지 않은 채 나타나는 슬픔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슬픔의 기원을 추적

하기 위해 김춘수 시세계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해방직후의 동인지 『낭만파』를 점검하고, 이 시기에 나타나는 주요 정조가 제1시집 『구름과 장미』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기시에 나타나는 슬픔은 상실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상실한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애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실한 대상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인 멜랑콜리에 해당한다. 멜랑콜리는 대상으로 향했던 리비도를 자아로 환원시킴으로써 나르시시즘적 침잠의 세계를 형성해 내는데, 이러한 특징은 부채를 통해 현존시키는 역설적 전략을 생성해 낸다. 김춘수의 초기시에 나타난 멜랑콜리는 상실한 것에 대한 감정이면서 동시에 멜랑콜리를 통해 상실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시킴으로써 부채하는 것이 현존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작용한다.

Ⅲ장에서는 중기시를 대표하는 무의미시가 역사와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미적 주체의 실천적 글쓰기임을 분석하였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이후에 김춘수의 시세계에는 역사에 대한 부정의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이 시기부터 전후의 멜랑콜리가 김춘수의 시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은 국민이 실체도 모르는 채 ‘실존’을 병처럼 앓아야 했던 5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은 김춘수의 무의미시의 정서적 토대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후의 현실인식 속에서 김춘수는 역사의 폭력에 맞서는 미적인 주체로서 처용을 창조해 낸다. 김춘수가 중기시의 주제로 지목한 바 있는 처용은 한국적 어릿광대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중섭, 예수와 함께 예술가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처용, 이중섭, 예수는 각각 독립적으로 언급되어 왔지만, 루오의 회화와의 관련성 하에서 하나의 주제로 통합되며 무의미시의 무의식적 주제가 된다.

예술가의 상징으로서의 처용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김춘수는 처용설화와, 처용이 읊은 노래, 그리고 처용을 모델로 한 노래를 언급한 바 있는데, 앞의 두 가지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처용을 모델로 한 노래는 〈통영문화협회〉의 윤이상과의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통영문화협회〉의 회원이었던 유치진·윤이상의 〈처용의 노래〉에는 노래를 통해 죽음을 극복하고 역신을 물리치는 처용이 등장하는데, 김춘수는 이러한 처용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의미시는 주제의 차원에서는 처용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으며, 기법의 차원에서는 파상(破像)력과 음악성이라는 두 원리가 중요하게 작동한다. 멜랑콜리의 주요 전략인 파상(破像)력은 이미지를 파괴하고 창조하는 능력으로, '서술적 이미지-> 탈이미지-> 언어 파괴'로 이어지는 무의미시의 발달단계를 해석하는 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언어의 문법을 파괴할 때, 시는 존립이 어려워진다. 김춘수는 이미지를 파괴함과 동시에 독특한 리듬을 창출해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한국적 광대의 리듬인 장타령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리듬에 대한 탐구는 '주문'에서 '악보'로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을 밟는다.

역시주의의 낙관론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성찰했던 김춘수는 역시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그 토대가 되는 시간성을 전복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전략은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된다. 첫째 역사의 공허하고 동질적인 시간을 폭파시키는 '순간'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시간성을 창조하는 것이다. 현실의 시간의 흐름을 정지시키고 출현하는 신성한 시간은 김춘수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었던 천사와 예수의 이미지를 통해 현현된다. 둘째, 영화기법의 하나인 몽타주 기법을 통해 시공간을 병치시키는 전략을 구상한다. 김춘수는 오랜 기간 동안 영화에 심취하였으며, 그의 영화 취향은 단순한 감상의 차원을 넘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김춘수는 일본의 도쿄에서 발행한 《映畫之友》라는 영화전문잡지를 정기구독 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화이론과 전문가들의 비평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기법의 차원에서 김춘수는 서로 다른 시공간을 병치시키는 몽타주를 통해 역사의 시간을 넘어서는 전략을 기획한다. 기본적으로 몽타주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병치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김춘수

의 무의미시에 나타난 몽타주는 이질적인 이미지가 병치된다는 점에서 에이젠슈테인의 충돌의 몽타주와 유사하다. 마이어홀드의 연극에서 영향을 받은 충돌의 몽타주는 '부조화', '그로테스크'를 특징으로 하는데, 김춘수의 시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역시 몽타주 형식을 통해 현실의 시공간을 전복시키는 전략으로 활용된다.

셋째, 시공간을 전도시키는 상상력을 통해 역사의 시간을 전복시킨다.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조건은 중력을 통해 표현되며, 무거움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반면에 자유의 상징으로서의 예수는 '물 위로 걸어간' 사람으로 형상화된다. 김춘수에게 역사의 시간은 중력의 이미지로 은유되며, '거꾸로 보기'와 '무중력'을 통해 역사의 시간을 전복시키는 상상력을 보여준다.

무의미시는 그 어떤 의미에 의해서도 손상되지 않는 시를 쓰고 싶어 했던 김춘수의 시적 열망의 소산으로, 진보적 역사를 날카롭게 성찰하는 멜랑콜리한 시인의 세계인식이 창조적인 글쓰기로 나타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의미시는 '창조적 정신성'의 발현인 동시에, 시적 구원을 향한 도정에서 발생한 텍스트로 보아야 한다.

IV장에서는 역사인식의 변화와 함께 멜랑콜리가 초극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후기시의 세계에 진입하면서 무의미시를 종결하고 산문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김춘수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산문시와 실제 창작한 산문시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원인을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분석해 보았다. 김춘수의 후기시의 출발을 알리는 산문시는 역사와 현실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상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산문시 창작과 함께 보르헤스의 세계관을 시의 주제로 형상화함으로써 역사주의를 넘어서는 신화적(유희적) 세계관을 형상화한다.

또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를 통해 진보적 역사주의를 좌절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김춘수는 자신의 오랜 시적 주제였던 고통과 역사, 자유의 문제에 대해 〈대심문관〉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성적 논리의 귀결이 결국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도스

토에프스키 소설의 주인공인 키릴로프와 라스콜리니코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의식은 ‘역사주의의 낙천성’이 토대로 하고 있는 유티미즘을 넘어서는 인간존재의 비극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김춘수는 『들림, 도스토예프스키』를 총 4부로 구성하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대심문관〉을 배치하고 있는데, 지상의 빵을 상징하는 대심문관과 천상의 빵을 상징하는 예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고통이 없는 완전한 자유의 세계가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고통이 없는 완전한 자유의 세계는 키릴로프식의 결론(자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김춘수는 ‘고통 속에 자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의 오랜 트라우마였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가 꿈꾸었던 숨막히는 자유에 관한 답을 발견한다.

『거울 속의 천사』부터 타계하기까지 김춘수의 시에서는 죽음이 중요한 시적 주제가 된다. 후기시에 나타난 죽음 인식은 죽음 일반에 대한 성찰이라기보다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의해 촉발되고 생성된 것이다. 김춘수의 죽음 인식은 영적인 공간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진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죽음 공간의 경계에 주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며, 거울세계를 통해 죽음을 미학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김춘수의 거울세계는 일종의 영적 세계로서, 그의 시세계에서 거울 세계는 천사가 있는 공간이면서 천사가 된 아내가 있는 공간으로 창조된다. 이러한 거울세계를 형상화함을 통해서 역사의 시간을 초극하는 탈역사성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춘수의 시세계는 벨랑콜리와 역사인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축조되었으며, 창작 활동 내내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그의 시세계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춘수의 시세계는 미학적인 실천방식을 통해 역사의 폭력에 맞서고, 그것을 초극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적 구원에 이른 길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